

조선혁명의 력사는 자강력으로 개척되고 승리하여온 력사

박영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혁명의 력사는 자강력으로 개척되고 승리하여온 력사입니다.》(《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36~37페이지)

자강력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강하게 하는 힘이다. 남의 덕으로가 아니라 자기 식의 투쟁방식, 창조정신으로 자기의 힘을 천백배로 강화해나가는것이 자강력이다.

생명체가 물과 공기를 떠나 살수 없듯이 혁명하는 인민은 자강력이 없으면 자기 힘으로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없다.

조선혁명의 력사는 무엇보다도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자강력으로 개척된 성스러운 력사이다.

사대와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며 자강의 길만이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의 존엄을 살리고 혁명과 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길이다.

동방의 강국으로 위용떨치던 우리 나라는 조선봉건왕조시기에 봉건통치배들의 사대와 외세의존, 부패무능한 통치로 국력이 쇠진해지게 되었으며 결국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되게 되었다.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에 우리 나라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이 남긴 경험과 교훈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자기 나라 혁명은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는 신념을 지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에 기초하여 주체19(1930)년 6월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혁명의 새로운 지도사상,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을 승리로 이끌어나가기 위하여서는 혁명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그러자면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조직동원하여 조선혁명을 어디까지나 조선인민자신의 힘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혁명의 진리를 밝혀주시였다.

자기 나라 혁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오직 자체의 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고 혁명을 해나가야 한다는 정신은 주체사상에 그 기초를 두고 자강력을 낳았다.

주체사상이 창시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야 한다는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지고 조선혁명을 전진시켜나갈수 있었으며 조선혁명은 이때부터 자강력에 의하여 개척되게 되었다.

조선의 혁명가들은 우선 자체로 혁명대오를 꾸려나갔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깨우치고 투쟁으로 불러일으

켰으며 핵심을 키우고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웠다. 종파분자들처럼 국제당을 찾아다니며 그 누구의 인정을 받으려 다닌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그 어떤 잡사상에도 물젖지 않은 혁명가들로 조직을 확대하고 인민대중속에 튼튼히 뿌리박은 주체형의 혁명대오, 혁명적무장대오를 꾸려나갔다.

조선의 혁명가들은 또한 무장도 자체로 해결하였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적의 무기를 빼앗아 무장을 해결하였으며 밀림속의 병기창에서 무기와 폭탄을 만들어 일제를 쳐부신 항일혁명투사들은 무장투쟁의 전과정에 무장장비를 자체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자력으로 해결해나갔다.

조선의 혁명가들은 또한 식량과 피복도 자체로 해결하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은 국가적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어려운 속에서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식량과 피복을 비롯한 물자들을 해결하였으며 항일혁명의 승리를 안아왔다.

항일혁명의 승리는 혁명가들이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그들을 혁명대오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마련해나가면서 제국주의와 맞서 싸운다면 그 어떤 강적도 능히 타승할수 있으며 혁명에서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 고귀한 진리를 확증하였다.

이처럼 자강력은 우리 혁명의 1세대들이 백두의 설한풍속에서도 혁명적신념을 버리지 않게 한 사상의 기치였고 강력한 주체적힘으로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성취하게 한 필승의 보검이었다.

조선혁명의 력사는 다음으로 혁명투쟁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온갖 시련과 난관을 자강력으로 뚫고 승리하여온 영광스러운 력사이다.

최악의 시련속에서도 우리 조국이 세기를 주름잡으며 비약할수 있게 한 근본비결은 자강력이다.

부닥치는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정신과 남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 내달리는 대담한 공격정신,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는 비상한 창조본래도 자강력에서 나온다.

우리 인민은 우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 민주조선건설을 자체의 힘으로 해나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자력갱생의 구호를 높이 드시고 거창하고도 심각한 민주주의적변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시였다.

해방후 우리 인민앞에는 일제잔재와 봉건잔재를 청산하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함으로써 민주주의적인 새 조선을 건설해야 할 역사적과업이 나섰다. 이 역사적과업을 수행하는 과정도 수많은 난관과 준엄한 시련이 막아서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과정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의 사상과 신념,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혁명의 앞길에 가로놓인 모든 난관과 시련을 뚫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수행으로 전체 조선인민을 불러일으키시였다.

자체의 힘으로 건당, 건국, 건군로선을 관철하여 혁명의 정치적무기를 마련하고 민족통일전선의 기치아래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며 그에 의거하여 토지개혁, 중요산업국유화를 비롯한 제반민주개혁과 사회생활의 민주화를 실현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

상과 현명한 정도는 해방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한 근본요인이었다.

이 혁명은 큰 나라의 힘이나 도움에 의거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자력으로 수행되고 다른 나라의것을 모방하거나 이식한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진행된 자주적인 혁명이었다.

우리 인민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정도밑에 조국해방전쟁에서 자체의 힘으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조국해방전쟁은 정규무력으로 창건된지 2년밖에 안되는 청소한 조선인민군이 침략자들과 벌린 군사적 및 정치적, 경제적대결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전당, 전군, 전민을 조국수호전으로 불러일으키시였으며 백전백승의 지략과 전법으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적들의 수적, 기술적우세에 비할바없이 강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치사상적힘으로 전승신화를 창조해나가도록 하시였다.

가렬처절한 전화의 나날 불비쏟아지는 최전선에까지 나오시여 싸우는 인민군장병들에게 숭고한 애국주의를 심어주시고 작전적명안도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령도와 아버지사랑은 우리 인민군대가 전쟁 전기간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고 적들을 련속 궁지에 몰아넣으며 세계적인 기적을 낳게 한 근본원천이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은 곧 조국이시고 수령님께서 계시여 반드시 이긴다는 필승의 신념을 안고 전인민적인 항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영웅한 인민군전사들은 불타는 전호가에서 최고사령관동지께 맹세문을 올리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웨치며 결사전으로 나갔으며 한몸이 육탄이 되어 조국의 촛토를 피로써 지켜냈다. 후방인민들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르며 불비속에서도 전선원호와 전시생산에 자기들의 모든것을 다 바치였다.

군수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자력으로 항일대전의 승리를 이룩한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여 준엄한 전화의 나날에도 적들을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넣을 무기와 총포탄들을 중단없이 만들어냈다.

전기가 오지 않을 때에는 손으로 피대를 돌리면서 원쑤격멸의 총과 포탄을 생산한 군자리로동계급의 영웅적인 투쟁은 우리 인민의 수령결사옹위정신, 조국수호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이 어떤 폭발적인 위력을 낳는가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참으로 조국해방전쟁의 빛나는 승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주체전법, 령활한 전략전술의 승리이며 자기것에 대한 사랑과 자기 힘에 대한 믿음을 지닌 우리 군대와 인민의 조국수호정신, 백절불굴의 정신력의 승리이다.

우리 인민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정도밑에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에서 자체의 힘으로 기적적인 성과를 안아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후 조선은 100년이 걸려도 일떠서지 못한다고 떠벌이던 원쑤들에게 복구건설에서도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우리 인민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복구건설에 떨쳐나서도록 이끄시였다.

우리 인민은 대국주의자들이 《통합경제》를 강요할 때에도 우리의 힘과 기술로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을 지펴올려 기적을 창조하였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웠던 시기 내부예비를 동원하고 기술을 혁신하여 6만t능력의 분괴압연기에서 12만t의 강재를 생산하고 자동차, 트랙트르, 불도젤을 비롯한 기계설비들을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냈다.

당 제4차대회에 자체의 힘과 기술, 자재로 훌륭히 만든 전기기관차를 선물로 드린 로동계급과 우리 인민의 자강력은 혁명이 전진할수록 더 높이 승화되는 정신력의 발현이었다.

이 무한대한 자강력으로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공업화의 역사적과업을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행하고 이 땅위에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을 일떠세웠다.

우리 인민은 또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독창적인 령도방식, 선군혁명령도밑에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우리 식대로 살아가자!》라는 전략적구호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갈수 있게 한 추동력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특히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인민군군인들속에서 높이 발양되고있는 수령결사옹위정신과 결사관철의 정신을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명명하시고 온 사회가 인민군군인들의 투쟁정신을 적극 따라배우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혁명적군인정신의 구현인 강계정신을 창조하고 성강의 봉화를 지펴올려 고난의 행군을 하는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필승의 신념을 안고 부강조국건설의 믿음직한 도약대를 마련하였다.

우리 인민의 자강력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진격로를 열어나가는 길에서 더욱 힘있게 과시되었다.

조선의 녀과 기상이 살아높뛰는 주체철과 주체비료, 주체섬유에도 시련과 난관이 겹쌓일수록 더 높이 떨쳐나가는 우리 인민의 고귀한 자력자강의 녀이 응축되어있다.

우리 인민이 불패의 힘, 자강력을 지닌 위대한 인민으로 온 세상에 존엄떨치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사의 생눈길을 앞장에서 헤치시며 품을 들어 키우시였기때문이다.

이것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력사는 우리 인민을 자강력이 강한 인민으로 키워오신 성스러운 로정이며 자강력에 의거하여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워오신 창조의 력사로 되는것이다.

조선혁명의 자강력의 력사는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더욱 굳건히 이어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가들이 자강력을 잃으면 식물인간이 되고만다는 고귀한 철리를 가르쳐주시고 천만군민에게 자강력제일주의의 보검을 안겨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결심을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관철해내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발휘하는 자강력이다.

우리의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체의 힘으로 현대적인 지하전동차를 만들어낸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결사관철하려는 우리 인민의 충정의 열도가 얼마나 높고 강국시대, 문명

시대를 열어나가는 조선의 진짜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천만군민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우리 조국을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수준에 올려 세우기 위하여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억세게 싸워나가기에 민족자존의 기상이 약동하는 이 땅우에 새로운 만리마시대가 펼쳐지고있다.

시간과 정의는 우리 편에 있으며 우리의 자강력은 엄혹한 시련속에서 천백배로 강해지고있다.

사대와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며 자강의 길만이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의 존엄을 살리고 혁명과 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길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백두의 혁명정신과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주의강국건설대업과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반드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이룩해나갈것이다.

실마리어 자강력, 사회주의강국